

여야, 예산·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불발

‘4+1’ 협상 가속화 오늘 본회의 일괄 상정·표결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변수...향후 전략 고심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8일에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로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는 불발됐다.

이대로라면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한국당의 격한 반발은 볼 보듯 뻔한 상황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4+1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이후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필리버스터가 걸린 민생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1일부터 국회를 다시 가동하도록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해왔다. 정치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

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9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밝힌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정치국회 막판 극적인 ‘빅딜’을 이룰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단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한국당까지 참여한 테이블에서 더 논의

한 뒤 이후 상정·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9일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새 원내사령탑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오후 본회의 이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강석호·김선동 의원은 비교적 협상에 열려 있다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로 나선 바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과 본회의가 연달아 예정된 ‘운명의 9일’을 앞두고 여야는 이날 물밑에서 분위기를 살피며 향후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여야 4+1 원내 대표급 회동

/연합뉴스

당권파·유승민계·안철수계 ‘3派 3色 이합집산’ 수순

유승민계 “1월 초순까지 탈당”...안철수계 “安의 뜻 기다려야”
당권파도 제3지대 재창당 “기호 3번으로 총선...호남당 아니다”

바른미래당이 8일 분당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한 살림을 꾸려온 당내 각 정파의 이합집산이 주목된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비당권파, 그리고 비당권파 내에서도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로 나뉜다. 이들의 결별은 총선 지형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 전망이다.

변혁이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 창당에 나선 가운데 유승민 의원은 필두로 한 바른정당 출신, 즉 유승민계 의원 8명을 중심으로 릴레이 탈당·신당 합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등 원내 주요직을 장악한 이들은 정치국회까지 역할을 다 한 뒤 탈당하려 했으나 국회 파행 장기화로 결단 시점을 다소 늦췄다.

변혁에 속한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만 끝나면 탈당을 할 것”이라며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당과의 보수통합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유승민계 의원들이 먼저 깃발을 든 반면 변혁 소속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지역구가 있는 권은희 신당기획단장을 제외한 비례대표 6명은 일단 바른미래당에

잔류할 전망이다.

이들은 유승민계가 창당한 뒤인 내년 1월30일 이후 탈당을 계획이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5월29일) 120일 전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직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재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방문학자로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은 변혁의 탈당·창당 행보에 대한 ‘응답 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철수계 의원들 역시 행동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변혁 측이 탈당한 뒤 ‘제3지대 신당’으로 재창당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중도개혁’ 노선 정당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제3당 입지를 굳히겠다는 목

표다.

정치권에서는 변혁 15명이 탈당하면 당권파 9명만 남는다는 점에서 당권파가 대안신당 등을 흡수해 ‘호남계 정당’으로 탈바꿈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 지위(의원 20명)를 유지하고, 총선 지지 기반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당권파 의원은 “‘호남당’, ‘제2의 국민의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은 오해일 뿐”이라며 “진정한 중도 개혁 정당을 만들기 위해 현재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입합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호 3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원내 세력과의 통합·연대가 이뤄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클릭

황주홍, 지역구 순회 의정보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총 38회에 걸친 지역구 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황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국회와 지역구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의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황 위원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입법활동과 당원 확보 그리고 호남 유일의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짜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왔다.

한편 황 위원장은 내년 1월9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짜우지 않는 정치: 민심의 정중앙에 서다’란 책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윤영일 ‘세계평화문화대상’ 의정 대상 수상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사진)이 6일 ‘2019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부야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윤영일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 북미관계, 일본과의 경제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앞장선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위원으로서,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어업 장비의 대부분이 일본산인데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으로 농어업계가 부품

조달이 어려워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입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김진수기자

서삼석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사진)은 8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 생태축’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나누고,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밖에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해양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기자

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규모로 1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의미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 관계자는 8일 “보통 정부 예산안에서 5천억~6천억원 순삭감을 하는데 올해는 순

감액이 1조원은 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4+1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들어온 것은 4천여억원 규모”라면서 “4+1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 논의는 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우수 훈련기관
2019년 4월~10월
교육부장관 1등급 우수기관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2020학년도 전액무료 훈련

1월 중 개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제품디자인(3D 프린팅)
스마트자동화제어	전기공사(내선공사)
금속재료용접(특수용접)	한식.양식.중식.일식
자동차부품조립 및 관리	제과.제빵.바리스타 / 네일.메이컵.피부

타일+조적·미장 / 타일 (주말, 야간반)

무료취업알선, 구인구직자모집(062-369-1829)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견학 및 접수 가능!!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